

2020년 도 제2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0년 12월 10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윤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51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지난 9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1.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작성 시 고용상황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엄밀히 분석·제시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의 내용과 평가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최근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내용과 평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최근 물가의 움직임이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물가에 대한 서술을 보강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증가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12월 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비우량물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우량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비록 최근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지만 기업대출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참고 1-1.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구조 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에서 사용된 체감물가라는 개념이 소비자물가지수 대상 품목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을 명시하고, 동 지수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참고 1-2.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징'과 관련하여 일시휴직자수의 변동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법」에서 당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원활

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 만큼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 외부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80호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결과>

(1) 조사국장이 보고 제80호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생략)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2년 뒤에 있을 정부와의 협의에 대비하여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내용이 최선인지,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가 그동안의 소비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당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구구조, 소득분배 및 소비구조의 변화가 물가상승률의 추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의 의견을 유념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